

운영비 지원도 없는 허울뿐인 순천만 국가정원

국가정원 1호 등록 압박
순천시 내년 33억원 요청
기재부 예산안서 제외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이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은 못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가정원 등록이 확실시되지만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순천만정원 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가 요청한 순천만정원 관리비 33억원, 산업단지안전 개조지원비 8억원 등이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억원이 지원된 2016년도 정원지원센터건축비 25억원만 반영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순천만정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순천시는 올해 다른 항목의 예산을 감축하면서 가까스로 1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운영비의 절반 정도의 국고지원을 예상했던 순천시는 정작 요구액이 기재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요청한 33억원도 과거 수년전 운영비가 66억원이라는 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운영비를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라며 “산림청과 함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내 최초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실질적으로 정원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순천만정원’ 지방정원 신청서의 구역도, 시설명세서, 수목유전자원 목록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증을 교부한 전남도는 다음날인 28일 순천시와 함께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정원 등록 여부는 8월 초순 심사위원들의 현장 확인, 8월 중순 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92만6992㎡에 위치, 지난 2014년 4월 20일 정식 개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영산강 녹조 확산...등등 뜬 물고기

3일 오전 나주시 영산강 아래 영산강 본류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 영산강에서는 녹조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영산강을 흐르게 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재정 열악해 예산 삭감?...전남 관광개발사업 비상

도·22개 시군 56개 사업
지발위, 집행률 위주 평가
최하등급...내년예산 깎일 위기

전남도 관광자원개발 분야가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2개 시·군의 관련 예산 집행률이 등급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및 시·군이 낮은 평가가 불가피했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사업비 보조금액이 원칙적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올해 전남도 19개 주요 사업(3837억원), 22개 시·군 37개 사업(3006억원)을 평가한 결과 전남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최하

위 등급으로, 22개 시·군의 관광자원개발 기획(40점), 예산 집행률(30점), 사업 성과(30점) 등이 그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가운데 함평군과 진도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D등급을 받았다. 계획 반복이나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폐널터로 내년 관련 예산(지역발전특별회계)이 원칙적으로 올해보다 10% 삭감하게 돼 있다. 시·군 사업 중 목포시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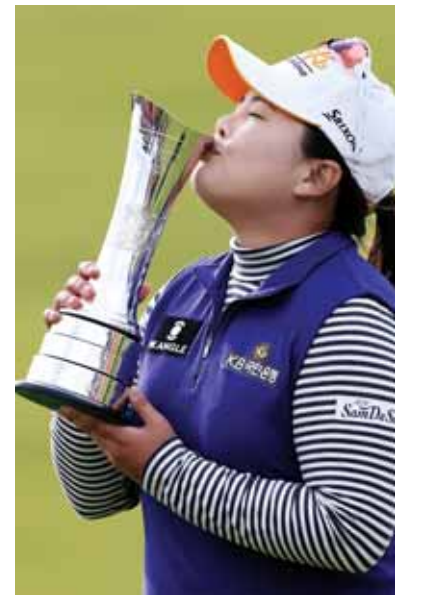
우수 분야인 A등급은 전남도의 체육진흥시설 지원과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목포시의 특수상황지역개발, 곡성군과 구례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5개다.

평가 결과 미진한 분야로 분류되는 C등급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지역특성화사업육성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 등 모두 9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들이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집행률이 낮아 빛어진 일”이라며 “관광자원개발 분야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지방위의 평가기준 개선과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브리티시오픈 우승
박인비 2연속 첫
커리어 그랜드 슬램
LPGA 7번째 위업 달성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브리티시 오픈 트로피를 수집하면서 LPGA 7번째,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관련기사 20면>

박인비는 3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탄베리 리조트 에일사 코스(파 72·6410야드)에서 끝난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이글 1개,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기록,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20·넵스·테레사 루(대만))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경기 중반 14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우수 상금으로 45만 달러(약 5억 2000만원)를 받은 박인비는 2013년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US오픈 정상에 오른대 이어 브리티시오픈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위업을 달성했다. 2003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후 12년 만이자 7번째 기록이다.

또 박인비는 이날 우승과 함께 2006·2009년 11승을 넘어 역대 한 시즌 한국 국적 선수 최다승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20개 대회에서 12승을 싹쓸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화제의 베스트셀러!

박영선 의원 새 책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 사인회

- 일시: 8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광주 영풍문고 (종합버스터미널 1층)

누가 지도자인가

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통령 꿈과 그 현실

바움의숲